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오늘 연준이 몇 시에 금리 결정하나? 알아야 할 궁금증
- WSJ: 연준 금리 결정, 한국은행 등 다른 중앙은행들의 관심사
- Bloomberg: '향후 10년 이내 미 노동력 6백만명 부족해져'
- WSJ: 금리 인하해도 주택 자산 격차 해소 힘든 이유는?

### [미국 금융]

- WSJ: 금리 인하되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 [주택]

- Bloomberg: 8월 미 다가구 주택 완공 급증...임대 부담 줄 수 있어
- Bloomberg: 미국 주택 착공, 4월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Bloomberg: 미 모기지율, 연준 금리 인하를 앞두고 2년 만에 최저치
- CNBC: 주간 모기지 신청 수요도 14% 급등

### [미일 관계]

- CNNBusiness: 바이든 정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관련 시간 더 준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달러 스토어, 매출 감소에도 공격적 확장
- CNNBusiness: 노조 책임자, Stellantis 파업 표결 계획 발표
- CNBC: 애플, JP모건과 카드 인수 협상 중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WSJ: What Time is the Fed's Interest-Rate Decision? Here's What You Need to Know.**

**오늘 연준이 몇 시에 금리 결정하나? 알아야 할 궁금증**

- 오늘 수요일 연준은 정확히 오후 2시에 금리 결정을 발표한다. 그 이후 오후 2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다.
- 금리 인하 폭 예상과 관련해 선물 거래는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65%,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35%로 보고 있다.
- 오늘 향후 정책 금리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점도표도 공개될 예정이다.

WSJ 기사

**WSJ: The Fed Isn't First to Cut Rates, but It Is the Signal Other Central Banks W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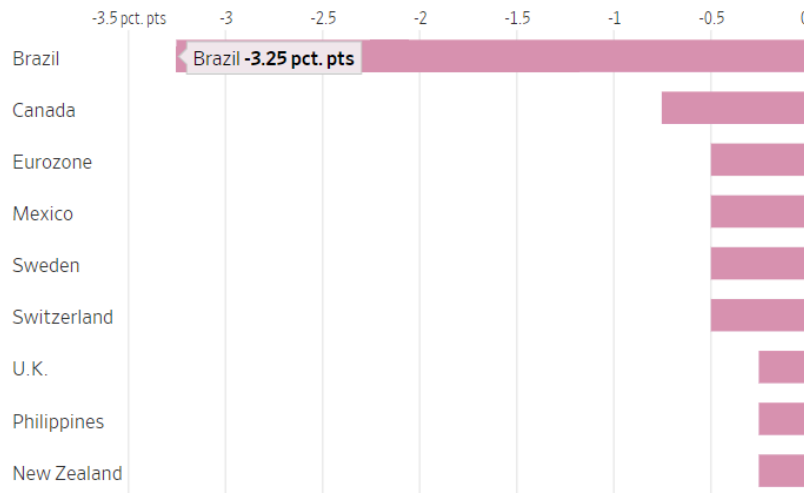
**연준 금리 결정, 한국은행 등 다른 중앙은행들의 관심사**

- 오늘 연준의 금리 결정은 해외 중앙은행들에게도 주요 관심사이다. 각국 국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미 유로존, 영국, 캐나다 등은 지난 수개월간 금리를 인하했다.
- 연준의 금리 인하는 한국과 인도, 남아프리카 등 각국의 정책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낮출 경우 자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여 수입 가격 인상 등 인플레이 압력을 받는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중앙은행 관리들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국의 조치만으로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 남아프리카는 연준 금리 인하 다음 날인 이번 주 목요일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인다.

**Rate cutters**

Some central banks have already lowered borrowing costs since 2023.

**Rate moves in percentage points**



Source: Central banks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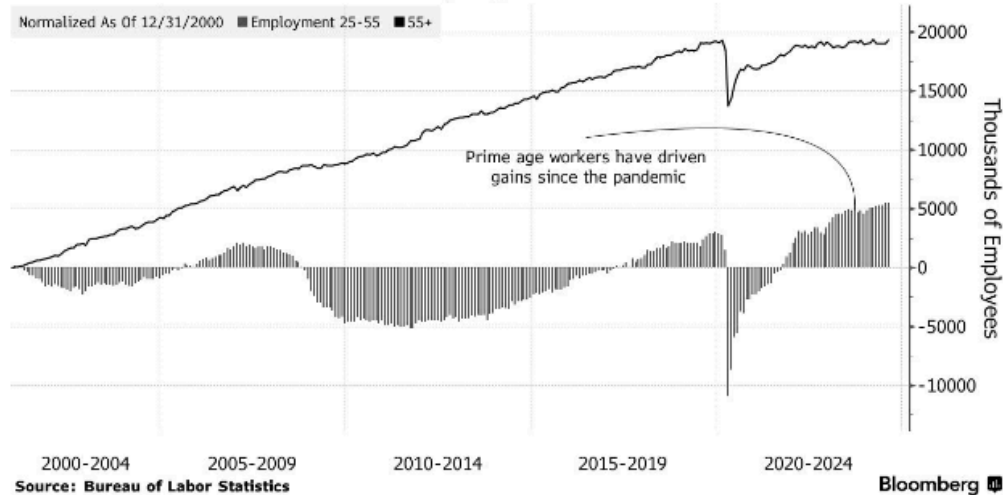
## Bloomberg: US Faces a Deficit of 6 Million Workers in Less Than a Decade

‘향후 10년 이내 미 노동력 6백만명 부족해져’

- 미국 기업체들이 향후 10년 이내 6백만명의 노동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한다고 연구 결과는 밝혔다.
- 은퇴 현상과 더불어 근로자 숫자와 가능한 일자리와의 격차, 남성 노동 참가 인력의 감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노동 시장 데이터 관련 Lightcast는 밝혔다.
- 한마디로 인구 증가율을 감안해서 오는 2032년까지 현재 수준과 비교해 6백만명의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 한편 2020년 이래 퇴직한 5백만명 중 5분의 4는 55세 이상이었다. 또 2027년에는 65세가 되는 미국인 숫자가 16세가 되는 미국인 숫자보다 처음으로 많아지게 되어, 은퇴자를 대체할 새로운 고용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Workplace Shift

Older workers have not added to net job growth since 2020



Bloomberg 기사

## WSJ: Why a Fed Rate Cut Won't Solve the Housing Wealth Gap

금리 인하해도 주택 자산 격차 해소 힘든 이유는?

- 미국의 주택 시장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택 소유자 집단과 주택 구매를 희망해도 여력이 없는 집단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두 집단 간의 격차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 연준의 금리 인하는 대출 담보 금리를 낮추게 된다. 이에 모기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작년 하반기나 올해 초 주택 구매자들은 금리 인하로 이득을 보게 된다. 모기지 채용자 신청자가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했다.
- 그런데 현재 주택 구매 희망자 입장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작년의 최고치에서 내렸지만 여전히 다른 부담 요인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다. 집값은 천정

부지로 상승했고, 주택 물량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제한된 데다, 주택 보험료와 부동산세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재정적 여력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 가격은 지난 2019년 이래 50% 이상 상승해 주택 소유자의 부는 늘어났다.

Purchase-application index versus refinance-application index, change from a year earlier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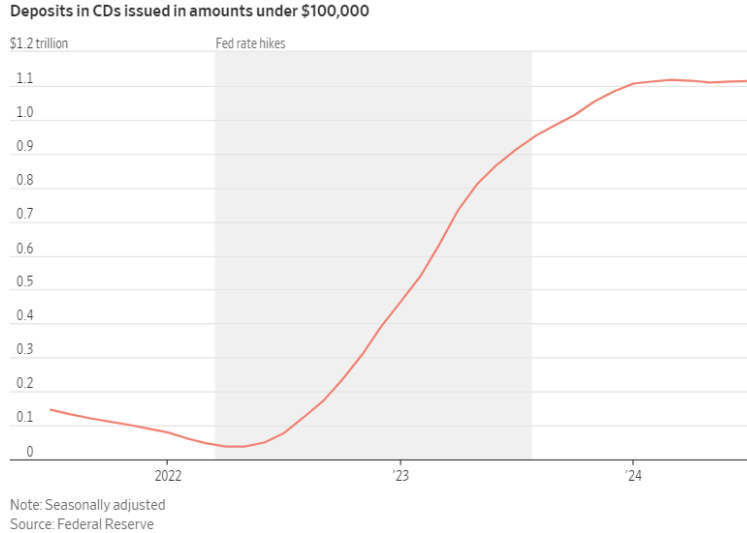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Where to Put Your Money When the Fed Cuts Rates**  
금리 인하되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 금리가 올랐던 지난 2년간 저축 계좌와 머니 마켓 기금에 수조 달러가 유입됐다. 머니 마켓 금리의 소매 자산은 지난주에 2조6천억달러로 2022년 9월의 1조 5천억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
- 이제는 이 같은 현금 비축이 바뀌어야 한다. CD나 국채를 구입해서 현재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은행들이 CD 등의 이자율을 낮추기 때문이다.
- 긴급한 상황 때 필요한 돈과 향후 2년 후 필요한 돈도 검토해야 한다. 고수익 계좌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다운 페이지처럼 특정 비용이 들 경우에는 돈이 필요해지는 기간에 만기가 되는 CD나 채권을 구매해라. 적어도 10년 이상 필요가 없을 수 있는 돈은 주식처럼 장기 투자에 넣은 것이 좋다. 단기도 아니고 장기도 아닌 중기 시점을 감안할 경우 만기 종류가 많은 bond or CD ladders도 추천한다.

-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고금리 지불을 늦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CD 금리가 인하할 경우 인상 때보다 수익률 지급을 빨리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



WSJ 기사

[주택]

**Bloomberg: US Multifamily Housing Completions Surge in Good Sign for Rents**

**8월 미 다가구 주택 완공 급증...임대 부담 줄 수 있어**

- 8월에 2가구 이상의 거주 건물이 75만7천채가 완공되어 지난 1974년 7월 이래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오늘 수요일 미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는 밝혔다.
- 전달보다 39%가 증가한 것은 남부지역 월간 완공률의 거의 두배가 넘는 5만2천채 완공에 힘입은 바가 크다.
- 지난 12개월 동안 아파트와 같은 다가구 주택 완공이 미 서부와 중서부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80년 이래 가장 큰 증가세다. 반면에 동북부는 변동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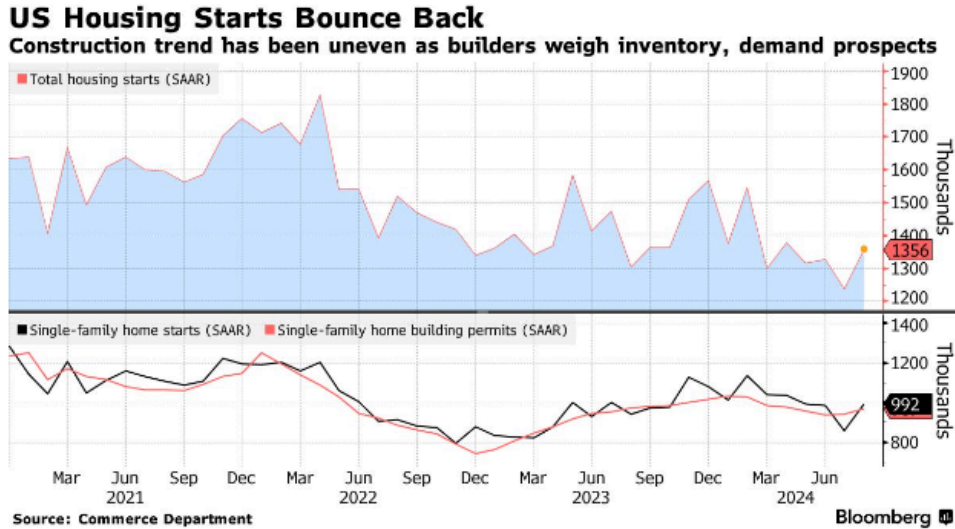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Housing Starts Increase to Fastest Pace Since April**  
**미국 주택 착공, 4월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미국 주택 착공 건수가 8월에 반등하기 시작했다. 수요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9.6% 증가한 연간 136만 건이었다.

지난 4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전체 건축 허가는 5% 증가한 148만 건을 기록했다.

- 건축업자들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미분양 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해 수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에 모기지 금리가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요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 목요일에는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가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8월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 재판매 시장은 재고 부족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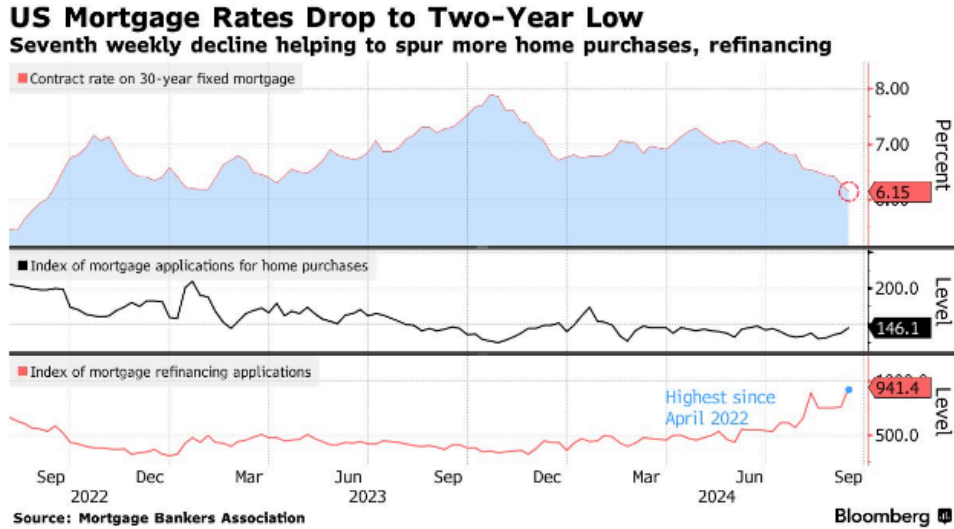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Mortgage Rates Drop to Two-Year Low Ahead of Fed Rate Cut

미 모기지율, 연준 금리 인하를 앞두고 2년 만에 최저치

-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주 미국 모기지 금리가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 금리는 7주 연속 하락해 14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6.15%를 기록했다. 15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9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5.42%를 기록했다. 조정 금리 모기지는 5.66%를 기록했다.
- 주택 구입 신청 지수는 5.4% 상승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용자 신청 지수도 24% 급등해 202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 비용이 낮아지면 매물 수가 부족한 기존 주택 재판매 시장에 더 많은 잠재적 판매자와 구매자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CNBC: Weekly mortgage demand surges 14% higher as interest rates hit two-year low

#### 주간 모기지 신청 수요도 14% 급등

- 지난주 모기지율이 다시 하락했으며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기지율 수요가 훌쩍 뛰었다. 특히 채용자 수요가 눈에 띄었다. 30년 모기지율 평균(76만6천5백50불 미만 용자의 경우) 6.29%에서 6.15%로 떨어졌다.
- 특히 주택 채용자 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24% 증가했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7% 늘었다. 주택 구매 모기지 신청 건수는 지난주에 5% 증가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여전히 0.4% 낮은 수준이다.

CNBC 기사

### [미일 관계]

### CNNBusiness: Biden administration gives Japanese steelmaker more time to make case for controversial deal

#### 바이든 정부,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관련 시간 더 준다

- 일본 제철이 150억달러 규모 US 스틸 인수에 대해 미 규제 당국에 국가 안보 검토 신청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으로 일본 제철은 US 스틸 인수를 위해 90일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 미국 기업과 관련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거래를 검토하는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몇 달 동안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검토했다.

- 미국 내에선 정치적 반발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 모두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반대했다. 하지만 이달 초 US 스틸은 일본 제철의 지원이 없으면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Dollar Stores Expand Aggressively Even as Sales Shrink** 달러 스토어, 매출 감소에도 공격적 확장

- 달러 스토어는 핵심 고객인 저소득층의 소비 둔화와 다른 할인 소매업체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신규 매장이 매출 증가와 시장 점유율 확보의 핵심이라 믿고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확장하고 있다. 달러 스토어 체인인 달러 제너럴과 달러 트리는 이번 회계연도 1천3백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 달러 스토어는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기존에는 아마존 등 온라인 소매업체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시골에 매장을 오픈해 고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제 아마존은 미국 외곽 지역으로도 배송을 시작해 달러 스토어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 이윤이 적은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달러 스토어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할 가능성은 작다. 대신 온라인 서비스를 늘리려는 움직임은 있다. 달러 트리는 일부 매장에서 온라인 주문 후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달러 제너럴은 배달 업체 DoorDash와 제휴를 맺었다.

WSJ 기사

#### **CNNBusiness: UAW President Fain announces strike vote plans at Stellantis** 노조 책임자, Stellantis 파업 표결 계획 발표

- 전미 자동차 노조(United Auto Workers union, UAW) 책임자인 Shawn Fain은 자동차 업체 Stellantis 파업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ellantis가 작년 체결한 노사 협상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 Stellantis는 Jeep, Ram, Dodge, Chrysler 브랜드의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Stellantis는 작년 파업 당시 전국 19개 제조 시설에 4만3천명의 UAW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파업 투표는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며, 실제 파업도 일부 공장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 Stellantis는 Dodge의 Durango 생산을 캐나다로 이전하는 건 확정된 결정 사항이 아니고,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합의된 투자 목표



와 차량 생산 약속을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 CNBC: Apple is in talks with JPMorgan for bank to take over card from Goldman Sachs 애플, JP모건과 카드 인수 협상 중

- JP모건이 골드만삭스의 애플 신용 카드 프로그램을 인수하기 위해 애플과 협상 중이다.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 JP모건은 애플 카드의 약 170억달러 규모의 대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적게 지불하려고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애플 카드의 평균 이상의 연체 및 채무불이행 비율은 사용자들이 대부분 신규 계좌이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JP 모건은 애플 카드의 캘린더 기반 청구 기능을 없애려고 한다. 해당 기능은 시차를 두지 않고 매월 초 고객들에게 동시에 명세서를 보내는 기능이다. 애플과 JP모건은 이 협상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CNBC 기사

### [보고서]

## 금리인하 앞둔 美, '그린스펀 때처럼' 경제 연착륙 시험대 올라 대선 한 달여 앞두고 인하 개시..."문제는 인플레 아닌 고금리" 주장도 소매판매 지표 호조에도 50bp 인하 전망 60%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개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 과정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침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지표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착륙 기대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상황과 관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95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때처럼 경제를 연착륙시키고 침체를 피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17일 평가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